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자) 대림 제 3주일 (자선 주일)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이승지 로사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박수정 클라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12월 생활말씀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1테살 5,16-18).”

(자) 대림 제 3주일 (23. 12. 17.)

* 말씀의 초대

• 제1독서(이사야서 61,1-2 7.10-11):

1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2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10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은 나의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신랑이 관을 쓰듯 신부가 패물로 단장하듯

그분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로움의 겹옷을 둘러 주셨기 때문이다.

11 땅이 새순을 돋아나게 하고 정원이 싹을 솟아나게 하듯 주 하느님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 의로움과 찬미가 솟아나게 하시리라.

• 제2독서(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1서 5,16-24):

형제 여러분, 16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17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18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19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20 예언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21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간직하고

22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하십시오.

23 평화의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 없이 지켜 주시기를 빕니다.

24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 복음(요한복음 1,6-8.19-28):

6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7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8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19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20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21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시오?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2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오?”

23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24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25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오?”

26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27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리기에라도 합당하지 않다.”

28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 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미사 전례

읽지 않게 하소서.

본기도

하느님, 하느님 백성이 주님의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저희가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 축제를 맞이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네.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그분이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
○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기록하신 분이시다.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
○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네.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목자이신 주님, 교회에서 봉사하는 많은 이를 보살펴 주시니, 주님 말씀과 가르침을 전하는 교리 교사들이 성령의 권능 안에서 담대하고 창의적으로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2.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세상을 구성하는 크고 작은 공동체들을 굽어살피시어,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며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게 하소서.

3.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세상 모든 이를 굽어살피시어,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현실 앞에서 가난 때문에 소외된 이들을 위로하시며, 저희가 연대의 힘으로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게 하소서.

4.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성탄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모든 가정에 강복하시어, 여러 사정으로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이 기도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을 느끼고 가족의 소중함을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주님께서는 인자하시니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어 다가오는 성탄 축제를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성가 ♪

입당 : 대림초점화 노래 (주일학교)
봉헌 : 510 (주님께 올리는 기도)
성체 : 153(오소서 주 예수여), 175(이 보다 더 큰은혜와)
파견 : 93 (임하소서 임마누엘)

공지 사항

- ♣ 성탄 판공성사 안내
 - 시간 : 미사 시작 15분 전, 미사 후
 - 장소 : sala gicchi.
- ♣ 세례식 안내
 - 다음 주(대림 제4주일) 미사 중, 세례식이 있습니다.
 -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박지숙 레아 자매님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 12월 24일 미사 안내
 - 11시 미사 : 대림 제4주일 미사
 - 17시 미사 : 성탄 밤미사(구유 경배 예물 있음)
- ♣ 모임/회의
 - 청년성서 파스카 : 금일(17일) 미사 후, 사제관
 - 금일(17일) 미사 후, 성모회 회의
- ♣ 올 한해 교무금을 납부해주신 신자분들께 감사드리며 12월 안으로 미납 교무금을 완납해주시고, 아울러 내년도 교무금액도 책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봉사자

	오늘(17일)	대림4주일 (24일)	성탄 밤미사 (24일)
제1독서	변의용 베네딕토	이승원 비오	히회숙 마리아
제2독서	구희선 스텔라	권혜림 세레나	박수정 클라라
복사	변가인 헬레나	김익찬 암브로시오	정상현 안토니오
복사	김사빈 엠마	이가는 마리아판체아	강한 프란체스코
계단·화장실	변의용 베네딕토	이승원 비오	정의용 베네딕토 정명룡 미켈레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 178.80 • 교무금 € 0.00